WUEC 2010
SANGJU KOREA

제9회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9th World University Equestrian Champion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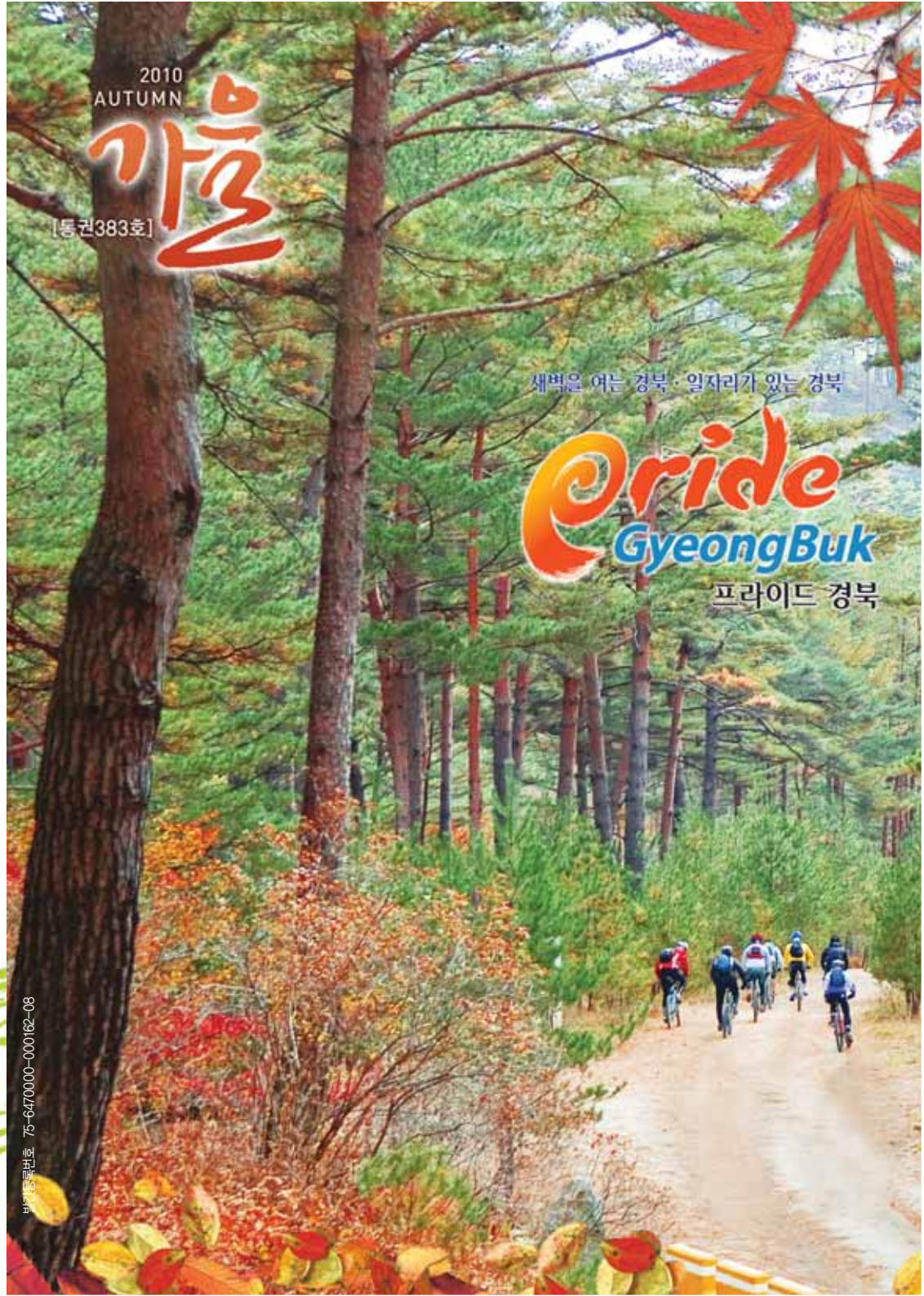
2010. 10. 28 목 ~ 11. 3 수

상주국제승마장

주최

주관 경상북도 상주시 대회조직위원회 KEF 대한승마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KRA 한국마사회



2010 AUTUMN

가을

[통권383호]

세계를 여는 경북 · 일자리가 있는 경북

eride GyeongBuk

프라이드 경북

발행등록번호 75-6470000-000162-08

CONTENTS

2010. 10

알찬살림 부자경북

04 경상북도, 일자리 평가 전국 '최우수상' 수상

웃음가득 행복경북

06 경북의 자랑! 하회 · 양동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
10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 '한류드림페스티벌' 개최

밝은미래 희망경북

12 주한 아프리카 11개국 대사 및 부인 초청 새마을 세계화 연수
14 구국의 대첩 화령장 전투, 그 감동의 순간이 재연된다!
15 영남권 신국제공항 최적입지는 밀양!

도민사랑 일류경북

16 경상북도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 '파란불!'
18 2010 경북 농업명장, 박한용 · 강성찬씨 선정
19 멕시코 공영방송 '경북 특집 다큐멘터리' 시사회 열려

나드리, 이리 오이소~

20 가 볼만 한 곳 – 영양 대티골 자연치유 생태마을
22 경북의 맛 – 영양 대티골 자연식 밥상 '풀누리 소반'

프라이드 News+

24 찰칵! 경북의 오늘
30 도정단신
34 제3회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
35 2010 월드그린에너지포럼
36 도의회 소식
44 경북 알림이
50 지금 시 · 군에서는
55 G20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회의

[통권 383호]

표지 이야기

오색단풍 길 따라 펼쳐지는 절경
대한민국 트레킹 1번지
울진 금강송 군락지, 가을로 물들다

2010 AUTUMN

· **발행처** | 경상북도 · **발행인** | 김관용 · **편집인** | 김창곤 · **발행일** | 2010년 10월 14일
· **문의처** | 경상북도 공보관실 702-702 대구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1445-3) TEL. 053)950-3058 FAX. 053)956-4926

도정 홍보지 「프라이드 경북」의 구독을 원하시거나 주소가 바뀌신 분은 **경북도청 공보관실(053.950.305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일자리 평가 전국 '최우수상' 수상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북도의 노력 입증 쾌거!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10 상반기 정부일자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지난 9월 1일 정부중앙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10 상반기 지역일자리 창출 평가보고회에 김관용 도지사가 직접 참석하여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0억원 증서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용자원 동원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지원 ▲추진과정의 노력정도 등 4대 분야 34개 지표를 중점 평가하였는데, 경상북도는 지난 상반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결집한 결과, 평가 전 분야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경상북도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에 집중할 수 있는 도정시스템을 제일 먼저 정비, 전국에서 최초로 일자리경제본부와 투자유치본부를 신설하고, 일자리창출단과 투자특공대를 구성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 도정시스템을 정비하였다. 이외에도 도와 시군에 설치한 '지역일자리센터'에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하고, 지역별·계층별로 각각 운영 중인 일자리센터를 통합·운영함으로써 기업의 구인난과 구직난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였다.

또한 도는 친서민 일자리를 확대 창출하기 위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경상비, 축제성 경비 등 예산을 절감하고, 가장 빨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계절적 실업 등에 신속하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기집행시상금(특별교부세 10억원) 등 가용재원(218억원)을 투입하여 모두 988억원을 지역일자리 창출에 추가로 투입함으로써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중소기업인턴 등 친서민일자리 1만 5천여개의 추가 일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청년들의 창조적 도전정신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육성, 중소기업청년인턴제 확대 등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노인들에게 건강한 일을 통한 일정수준의 소득보전과 사회참여를 통한 노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실버일자리 13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노인들에게 13,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평가를 통해 경상북도가 어느 지역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도내 어디에나 일자리가 마련되고 도민 누구나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이 밝힌 지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경상북도의 고용률은 64.9%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실업률도 2.0%를 유지하고 있는 등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계유산 보유지역

두 마을 어우러져 세계유산 등재 기념 축제한마당 열려

경상북도가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역사마을인 '안동 하회마을' 과 '경주 양동마을' 이 8월 1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제3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결정되었다.

유네스코는 등재 결의안을 통해 ▲주거 건축물과 정자, 정사(精舍 : 학문과 휴식의 공간), 서원 등의 전통 건축물들의 조화와 그 배치 방법 및 전통적 주거문화가 조선시대의 사회 구조와 독특한 유교적 양반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이 오랜 세월 동안 온전하게 지속되고 있는 점, ▲문집, 예술작품,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학술 및 문화적 성과물과 공동체 놀이, 세시풍속 및 전통 관혼상제 등 주민들의 생활과 신앙에 관계된 무형유산이 세대를 이어 전승되고 있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하회와 양동마을은 한국의 씨족마을 중 가장 오래되었고, 한국의 주거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전통 생활과 풍속을 지금까지 잘 보전하고 있어 한국의 역사마을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삶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고, 주민들이 세대를 이어 삶을 영위해 오고 있는 살아 있는 유산(Living Heritage)으로서 세계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한국인 삶 자체를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의 세계유산 등재로 우리나라는 이제 총 10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 가운데 3건이 우리 경북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계유산을 보유한 지역이 되었다.

특히 이번 하회와 양동마을의 세계유산 등재는 2009년 조선왕릉의 경우와는 달리 자문기구의 권고가 등재 보류(Refer)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21개 세계유산위원국에 대한 지지 교섭 활동 등을 통하여 어렵게 이루어낸 결실이기에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올해 5월,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회)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평가 보고서에서, 연속유산인 두 마을

을 통합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회와 양동마을'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 대해 등재 보류(Refer)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경상북도와 문화재청은 ICOMOS의 이러한 보류 권고와 그 주된 사유를 사전에 예측하고, 올해 초부터 국내 관련 전문가 및 경주·안동시 등과 대책 마련에 착수, 지난 4월말 두 마을을 통합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역사마을 보존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첫 번째 회의를 안동시청에서 개최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ICOMOS가 등재 보류로 권고하게 된 결정적 사유를 사전에 적절히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북도는 앞으로 마을주민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세대를 이어 마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마을별 중장기 보존관리 전략의 수립·시행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소중한 세계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해 세계유산조례 제정, 소방관리대책 마련 등의 '역사마을 중장기 보존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역사마을 관광인프라 확충' 및 '세계유산 디지털 콘텐츠화'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세계유산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세계문화유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8월 28일 경주 양동마을 내 양동초등학교에서 김관용 도지사, 경주·안동시장, 문화재청 차장, 도의원, 그리고 두 마을 종손 및 마을주민, 관광객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선포식을 개최, 하회와 양동, 두 마을이 어우러진 축제 한마당을 펼치기도 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경북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웅도로서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세계에 떨친 자랑스러운 쾌거"라며 "이 기쁨을 300만 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유한 정신과 전통문화를 지켜온 마을주민들의 노고와 희생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양동마을 세계유산 등재 숨은 일꾼 '존 랠스톤 소울' 국제펜클럽회장 양동마을 방문

김관용 도지사는 8월 13일 경주 양동마을을 방문한 존 랠스톤 소울 국제펜클럽회장을 만나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소울 국제펜클럽회장은 세계적인 소설가이자 다큐멘터리 작가로 지난 1994년 양동마을을 둘러본 뒤 이 마을 출신의 조선시대 대유학자인 회재 이언적 선생의 사상연구를 바탕으로 한 '무의식적 문명'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20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소개, 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같은 인연으로 지난 8월 12일 만해대상 문학부문을 수상하였고, 이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해온 공로로 만해대상을 함께 수상한 이동건 전 로타리클럽 회장과 함께 양동마을을 찾았다.

김관용 도지사는 "외국인으로서 소울 회장과 같이 우리의 사상과 문화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신 분이 드물다"며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의 홍보대사가 되어 줄 것을 정중히 부탁했다.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 '한류드림페스티벌' 개최

Hallyu

경상북도를 '한류 열풍'의 진원지로…

한류스타! 천년고도 경주에 다 모였다!

경상북도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경주에서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 특별이벤트인 '한류드림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한류드림페스티벌은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한류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드라마, 패션, 음악 등의 콘텐츠를 활용, 내 · 외국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세계적 규모의 문화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한국방문의 해 기간 동안 해외관광객 1,000만명 유치 목표를 위한 첫 번째 행사로 '한류스타와의 만남', '한류스타와 함께하는 이영희 패션쇼', '한류드림콘서트'와 행사기간 중에 선덕여왕 행차시연, 한국의 술과 떡 잔치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펼쳤다.

행사 첫날인 9월 10일에는 경주실내체육관에서 '한류스타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인기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김범, '선덕여왕'에서 '김유신'역을 맡았던 엄태웅, '내조의 여왕'에서 '태봉이'역으로 열풍을 일으켰던 '윤상현' 등이 출연해 각기 다른 매력으로 미니콘서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한류스타가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을 현장에서 직접 추첨하여 외국인 관람객에게 지급하는 특별이벤트도 마련해 선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둘째 날인 9월 11일에는 경주실내체육관에서 '한류스타와 함께하는 이영희 패션쇼'를 개최, 우리 전통의 멋을 세계에 알리는데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한복디자이너 이영희의 한복패션쇼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마지막 날인 9월 12일에는 경주시민운동장에서 한류드림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인 '한류드림콘서트'가 이번 축제의 대미를 장식, 외국인 관광객 4,000여명을 포함한 15,000여명의 국내 · 외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슈퍼주니어, 2PM, 2AM, 2NE1, 샤이니, 세븐, 포미닛, 비스트, 손담비, 카라, 애프터스쿨, miss A, FT아일랜드, 초신성, 다비치, 티아라, 엠블랙, 유키스, 시크릿, 플라워, 이루, 나인뮤지스, 서인국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국내 최정상의 아이돌그룹 23개팀의 스타급 가수들이 총 출동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행사기간 중에 국내 · 외 관람객을 위해 부대행사로 '선덕여왕 행차시연', '한국의 술과 떡잔치 체험', '신라촌 구성', '신라 역사 · 문화 · 음식체험', '봉황대 야간상설공연', '신라달빛 역사기행체험', '선무도 · 화랑도 무예체험', '선덕여왕유적지 답사 셔틀버스 운행'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 국내 · 외 관광객을 경주로 불러들여 경주관광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및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등 500여명을 초청하여 공연을 관람토록 하였으며, 이번 행사를 공동주관한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는 티켓판매 대금 1,300만원 상당 전액을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GMM Grammy(태국), I-weekly(싱가폴), WAI WAI(호주), 동경스포츠 신문사(일본) 등 국내 · 외 방송 및 언론사 300명이 경주를 찾아 열띤 취재 경쟁을 통해 경주문화를 세계에 타전하기도 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경북은 신라 · 가야 · 유교문화의 본향이며, 특히 경주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신비로운 매력을 간직한 신라천년의 수도이며,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 도시로서 이번 한류드림페스티벌을 계기로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한류 열풍'의 진원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FOREVER YOUNG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새마을운동에 희망 가져

대한민국 근대화 희망이었듯이 아프리카에도 희망 줄 수 있기를…

경상북도는 가봉, 세네갈, 코트디브아르, 가나, 튀니지 등 아프리카 11개국 한국 주재 대사와 부인 20명을 초청, 경북 구미에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세계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최근 아프리카 탄자니아 출신의 아사로즈 미기로 UN사무부총장과 아프리카연합(AU) 장핑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15개국 장·차관, 에티오피아 외무장·차관 등의 연이은 방문과 경상북도의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세계화가 소개되면서 아프리카 각국 대사들의 요청으로 외교부와 유엔 산하 세계관광기구(UNWTO) ST-EP(Sustainable Tourism-Eliminating Poverty)재단의 주관으로 추진되었다.

이들 대사 일행은 9월 10일 박몽용 경상북도새마을회장의 안내로 새마을역사관을 둘러보며 새마을운동의 태동과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잘 살아 보자’는 국민의 단결된 힘과 새마을 기본정신인 ‘근면·자조·협동’을 간접체험하며 짧은 기간에 가난을 극복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격찬의 박수를 보냈다.

이날 오후에는 ‘새마을 포럼 학술 토론회’에 참가, ‘새마을운동이 희망이다’라는 주제 강연을 듣고,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세계화 가능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에도 참여하였다.

이날 개회식 축사를 하게 된 장 피에르 솔-에마네(Jean-Pierre SOLE-EMANE) 주한 가봉대사는 “새마을운동이 1970년대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이었듯이 아프리카에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경상북도가 함께해 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새마을운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김관용 도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일행은 세계적인 기업인 (주)LG디스플레이 구미사업장의 홍보관을 견학하고, 중소기업으로는 세계시장 1위인 (주)영도벨벳을 방문하여 생산 전 공정과 제품 전시관을 둘러보기도 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환영만찬에 참석하여 “새마을운동은 정신개혁 운동이다. 경북에는 새마을에 대한 열정과 정신이 살아 있다. 성공 경험과 기술도 가지고 있다. 희망하는 국가에는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혀 참가한 대사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경상북도는 2008년 11월 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UNWTO ST-EP, 밀레니엄 프라미스(MP) 등의 단체와 함께 ‘한국형 밀레니엄 빌리지’ 조성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우간다와 탄자니아에 4개의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 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참전한 에티오피아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 8월 3일부터 16일까지 일정으로 새마을 대학생 봉사단을 29명을 파견, 의료봉사 활동과 주거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펼쳤다.

지난 8월에는 르완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등지에서 활동하게 될 ‘새마을 리더 해외봉사단’ 30명을 선발,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에서 파견, 국가의 지도자 20명과 함께 새마을 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탄자니아 2팀 12명, 에티오피아 2팀 12명, 르완다 1팀 6명이 현지에 도착했다.

현재 봉사단원들은 현지적응교육을 받고 있으며, 현지 마을 지도자들이 요청한 주거환경 개선, 용수개발 등 생활환경분야와 영농기술 전수, 가축분양 등 소득증대사업, 에이즈 및 풍토예방을 보건위생 분양사업을 앞으로 1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튀니지, 세네갈, 가나, 콩고, 에티오피아, 르완다 등 아프리카 15개국의 국가 지도자 및 공무원 등 81명이 경상북도를 찾아 새마을운동 세계화 전문교육과정을 받고 현지에서 지도자로서 활동 중에 있다.

구국의 대첩 화령장 전투, 그 감동의 순간이 재연되다!

6.25전쟁 60주년 맞아 전투재연 등 다채로운 전승행사 열려

10월 8일 오후 2시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6.25전쟁 당시 적 1개 사단을 격멸시키고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화령장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경상북도, 상주시, 육군본부가 함께하는 대규모 전승행사가 개최됐다.

행사는 화령장의 영웅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기념식과 특공무술, 의장대 시범, 고공강하, 헬기 비행 등 화려한 볼거리가 펼쳐졌다.

먼저 정예육군관에는 6.25전쟁관, 화령장전투관, 장교 · 사관생도 · 부사관 모집 홍보관, 해외파병관 등 다양한 전시관이 마련되었다. 6.25사진 및 유해발굴유품과 DMZ 기록 사진 영상물을 직접 관람할 수 있었으며, 육군 장병들의 진중창작품, 학생 문화예술 경연대회 입상작품들도 전시되었다. 시민운동장 주변에는 육군의 주력전차인 K1A1전차, 세계 최고 수준의 K9자주포, 그리고 육군항공의 헬기가 기종별로 전시되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또 주먹밥 시식, 예비군 훈련용 서바이벌 사격 등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시민들의 건강을 체크해주는 건강수호천사, 마술공연, 페이스 페인팅, 연예병사들의 팬 사인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 및 상주시 특산물 판매와 풍물시장도 함께 열렸다.

화령장 전투(1950. 7. 17 ~ 21)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기습남침으로 연일 후퇴를 거듭하던 중 육군 17연대가 상주 화령장 일대에서 적 15사단을 상대로 **단독으로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격멸시킨 전투**이다. 5일간의 전투로 북한군은 최소 625명 이상이 사살되고 50여명이 포로가 되었으나 아군의 피해는 불과 전사 4명 뿐이었다. 화령장 전투의 승리로 아군은 **낙동강방어선 구축을 위한 결정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전승의 신화를 남긴 **17연대 전장병은 1계급 특진**의 영예를 얻었고, 6.25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화령장 전투는 상주시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아 있다.

영남권 신국제공항 최적입지는 밀양!

영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밀양 신국제공항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 편리한공항 영남권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공항 국제 안전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순수민간공항 기존 군사공항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공항 건설비용이 적고, 항공수요가 충분합니다.
- 경쟁력있는공항 산업과 연계할 충분한 배후부지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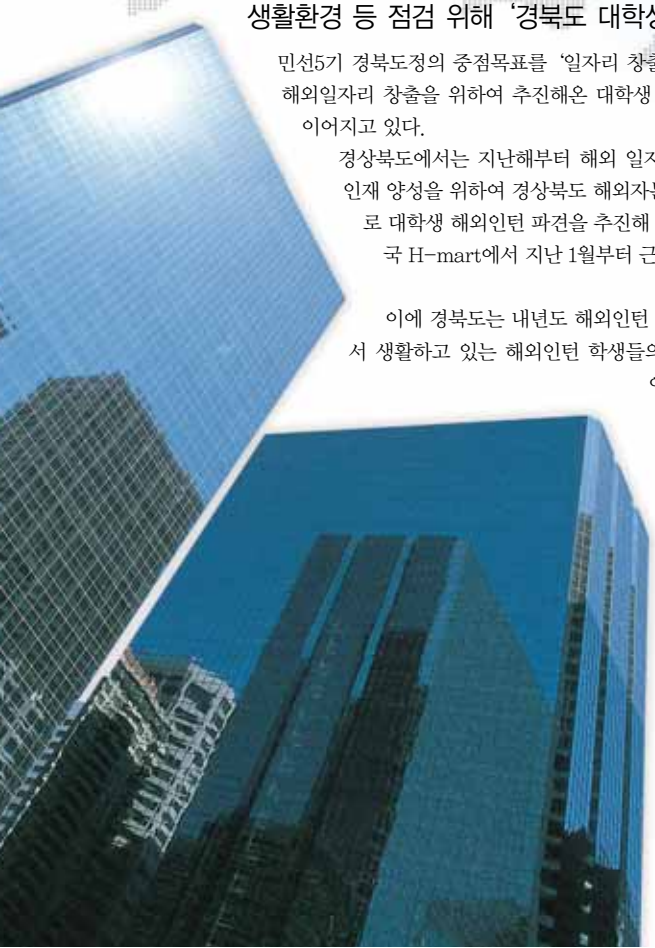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http://newairport.gb.go.kr

해외자문위원 지원으로 해외 기업체에 대학생 인턴 파견

생활환경 등 점검 위해 '경북도 대학생 해외 인턴 워크숍' 개최하기도

민선5기 경북도정의 중점목표를 '일자리 창출'로 정한 가운데 도에서 지난해부터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해온 대학생 해외 인턴사업에 긍정적인 평가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난해부터 해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실업해소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들이 운영하는 해외 기업체를 중심으로 대학생 해외인턴 파견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21명의 도내 대학생이 미국 H-mart에서 지난 1월부터 근무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내년도 해외인턴 파견(2011년 1월 예정)에 앞서 미국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해외인턴 학생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근무여건 및 생활환경 점검, 애로사항 발굴·해소를 통하여 향후 보다 발전적인 대학생 해외인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 8월 24일부터 26일 두 차례에 걸쳐 2박 3일 일정으로 경북도 및 미국 H-mart 관계자와 대학생 해외 인턴들이 함께 하는 '경북도 대학생 해외 인턴 워크숍'을 미국 현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대학생 해외 인턴 워크숍은 경북도 및 H-Mart 관계자와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인턴생활을 되돌아보고, 권일연 H-mart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미국문화의 이해'에 대한 특강 및 프리젠테이션 기법, 재무재표 이해 등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해외인턴 생활에 대한 개인 발표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지난 9월 16일에는 도청강당에서 면접을 거쳐 선발된 도내 대학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해외 인턴십 오리엔테이션을 개최, 이들은 오는 12월경 발대식을 거쳐 내년에 미국 H-mart로 파견할 예정이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H-mart 본사의 원정상 인사담당 이사와 비자발급 및 서류대행 전문회사인 ICCE 박지민 부사장이 참석하여 H-mart 소개, 미국 주요도시에서 활동 중인 1기 인턴들의 활동상을 담은 동영상 상영, ICCE측의 비자 관련 절차안내,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영어실력 향상방법, 주거방법, 교통수단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오리엔테이션을 지켜본 H-mart 원정상 이사는 "면접 시 미국 H-mart에서 자신들이 할 일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영어구사 능력이 높았다"며, "지난 1기 학생들과 비교, 이번에 지원한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도전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해외인턴십 제도의 성공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제2기 해외 인턴십 선발과정을 지켜본 ICCE 관계자들도 "지원학생들의 자질이 높아 미국에서의 인턴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내년 초 미국파견 시까지 남은 3개월 동안 해당학교 등에서 영어능력 향상, 직무교육, 현지생활 적응 등에 대한 준비"를 당부했다.

경상북도는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난 2월 미국 H-mart와 '대학생 해외인턴 사원채용 MOU'를 체결, 이로 인해 내년 미국 H-mart에 취업하는 해외 인턴수가 1기에 비해 대폭 확대된다.

경북도에서는 대학생 해외인턴들의 현지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 나가는 한편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학생 해외 인턴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현지 근무여건, 생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여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돈 · 인삼 명장에 경북 농업인 최고 명예 수여

신기술 개발 · 보급 앞장, 고소득은 물론 경북농업 발전 이끌어

경상북도는 '2010 경북농업명장'에 경산시 압량면에서 양돈을 하고 있는 박한용씨와 영주시 풍기읍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강성찬씨를 각각 선정했다.

'경북농업명장'은 200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9회째를 맞았으며, 고부가가치 농업의 실현과 함께 21세기 지식기반 농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도내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명예의 상이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양돈명장' 박한용씨는 돼지 1만 8,000두를 사육해 연간 매출 94억 1800만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설천바이오'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양돈 환경 개선 및 육질 개선, 바이러스 예방, 면역증강제를 연구개발하기도 했다. 또 2012년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해 양돈농가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를 100% 퇴·액비화하는 등 친환경 축산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국 종돈장 가운데 처음으로 HACCP농장으로 지정돼 위생적이고, 청렴한 종돈장 운영과 함께 일반 비육돈보다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자돈을 농가에 공급하는 등 경북 양돈 발전에 힘을 써왔다.

인삼명장으로 이번에 농업명장에 오른 강성찬씨는 3.27ha에 인삼을 재배해 연간 매출 21억원을 올렸으며, 철저한 제품관리로 2002년에는 국제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2000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2004년에는 FDA(미국 식품의약국)의 심사를 통과해 2008년까지 200만불의 미국 수출에 성공하기도 했다.

인삼재배를 하는 30년 동안 고설 및 비 누수방지 해가림시설을 도입하고, 홍삼제조 우량 원료 삼 생산기술 개발 등 인삼재배 신기술 보급에 앞장서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최근 세계 각국과 FTA 협상 등 국제농업환경 변화에서 국내농업이 보호받고 생존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지식과 기술이 융합된 창조적인 농업경영이 필요한 때"라며 "농업명장으로 선정된 농업인의 권위 및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대해 농가소득 증대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농업명장에게는 경상북도지사의 '농업명장 인증패'가 수여되고,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명장인증 분야에 대한 영농기술교육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또 명장농장에서 기술보급 · 전파를 위한 기술교육장 운영비도 일부 지원한다.

경상북도의 자연과 전통문화, 멕시코를 유혹하다!

경북 브랜드 강화 위한 해외 홍보사업 일환

경상북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문화가 태평양을 건너 멕시코에서 새로운 한류(韓流)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9월 8일 멕시코 할리스코주(州) 과달라하라시(市)의 플라크파크에서 이삼걸 행정부지사, 멕시코 할리스코주 공영방송사인 SJR TV 사뮤엘 고메즈 사장, 현지 한인들과 과달라하라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의 자연과 문화, 녹색현장을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 시사회가 열려 큰 관심을 모았다.

또한 시사회에 앞서 태권도, 살풀이, 전통춤 공연 등 '한국문화행사'가 함께 열려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운 멋을 멕시코인들에게 소개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날 시사회를 가진 경북 특집 다큐멘터리는 멕시코 할리스코주 공영방송사인 SJR TV가 지난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포항, 경주, 안동, 영양, 청도지역을 직접 촬영하여 편집한 것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 경주 불국사 등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문화유산과 관광명소, 먹을거리는 물론 포항과 구미의 첨단 녹색산업 현장이 담겨 있으며, 멕시코 전역에 방영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다큐멘터리 방영으로 중미의 전통강국인 멕시코에 경북의 이미지를 높이고 한류바람을 일으켜 투자와 관광객 유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세계화 ·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차원에서의 경북 브랜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2008년부터 해외홍보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중국 광동성 및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지의 방송사가 경북을 방문, 다큐멘터리를 제작 · 방영한 바 있고, 올해에는 멕시코 외에도 베트남 VTV, 중국 하남성 HNTV 방송사가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에 경북을 방문 · 취재한 바 있다.

이삼걸 행정부지사는 "SJR TV를 통해 경북이 소개되는 것은 양 도 · 주간 우호교류 증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문화와 녹색산업 분야에서 많은 협력으로 연결되기를 희망"했다. 또한 멕시코 공영방송협회장을 맡고 있는 고메즈 사장은 "멕시코 전역은 물론 남미에도 경북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자연을 느끼는 여행

자연이 주는 심신의 위안을 몸소 체험하는 '자연치유 생태마을'

경북 영양군 일월면 용화2리, 일명 대티골. 일월산 기슭, 해발 450~600m에 위치한 전형적인 산골마을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곳이 바로 청정한 공기와 맑은 물, 일월산이 가꾼 각종 토종 먹을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치유 생태마을' 이기 때문이다.

30여호의 작은 마을을 끼고 5분만 걸으면 나무들이 초록터널을 만든 숲길을 만난다. 지난해 생명의 숲이 주최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숲길' 공모에서 어울림상을 수상한 이 곳 대티골 숲길은 올해 들어 처음 일반인에 개방했다. 봉화와 영양을 이어주던 31번 옛 국도와 일제강점기 임업자들이 만들었다는 산판길로 이루어진 일월산 자락의 그림 같은 숲길이다.

숲길에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는 맑은 계곡이 흘러내린다. 계곡물은 마을 뒤편을 막고 서 있는 일월산 일자봉 중턱의 반변천 발원지에서 내려오는 물로 낙동강의 상류이다. 일월산으로 오르는 숲길에는 나무의자와 운치 있는 나무 그네를 매어놓았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과 눈부신 초록의 향연, 자연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심신의 위안을 얻는가를 몸소 느껴볼 수 있는 '자연치유 생태마을' 이다.

마을 주민들이라야 30여 가구, 40여명이 고작이지만,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생태연못을 만들어 생활하수를 자연정화하고, 마을을 넘어 계곡 숲으로 이어지는 길도 시멘트 도로포장을 하지 않고 흙길로 남겨둘 정도로 '최소한의 개발' 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질척이는 흙길이 농사를 짓기에 불편하기는 하지만 청정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 는 생각 때문에 도로포장을 거절하기도 했단다. 이러한 노력 때문에 올해에는 환경부로부터 우수생태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티골 주민들은 지난 2006년부터 맑은 물과 푸른 숲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소득화 하기 위해 '자연치유 생태마을 대티골'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월산 등산로를 자연치유 생태길로 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웰빙 자연식품인 산마늘, 두메부추, 눈개승마(삼나물) 등 새로운 작물을 가꾸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8년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자로 선정, 황토펜션 9동, 발효식품 가공공장 1개소, 생활하수 정화시설, 쉼터 및 농산물판매장, 등산로 및 산악자전거도로 정비 등 기반시설을 완비하며 명실공히 '자연치유 생태마을' 로 거듭나게 되었다.

가족·친구들과 아름다운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밤이면 산촌마을에 별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며 자연을 느끼는 여행,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영양으로 떠나보자! 황토펜션 예약은 물론 대티골 마을여행에 관한 정보는 마을에서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ttp://www.daetigol.com)

산과 들에 지천인 산나물, 들풀, 꽃을 차려낸 자연식 밥상

민들레, 오디, 달맞이꽃이 보기 좋고 맛도 좋은 샐러드가 되고…

경북 영양군 일월면 용화2리의 대티골의 일꾼을 자처하는 권용인씨, 나이 마흔이 넘어 영양의 두메산골을 찾아 농부가 되었단다. 산마늘이며 두메부추, 전호, 눈개승마(삼나물), 섬초롱, 쑥부쟁이, 미역취 등 이름도 낯선 토종 농산물을 친환경 농법으로 직접 길러 유기농 인증도 받았다.

대티골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수확한 산마늘, 두메부추는 물론이고 산과 들에 지천인 산나물, 들풀이며 꽃을 정갈하게 손질하여 그야말로 자연식 밥상인 '풀누리 소반'을 차려낸다.

풀누리 홈페이지
http://www.pulnuri.com
'풀누리 소반' 문의
(054)683-6832
– 체험비 10,000원,
– 체험문의 010-6743-4653 이은주

'풀누리 소반'을 소개한 글을 보면 '산과 들에서 자라는 잊혀진 우리의 먹거리들이 우리의 밥상에 올려지기를 바라는 농부의 마음'이라고 적고 있다.

민들레, 오디, 달맞이꽃이 샐러드가 되었다. 두릅은 살짝 데쳐 고추장소스를 뿌려 놓았다. 산마늘김치와 함께 나온 수육, 잡어 튀김에 각종 산나물 무침, 그리고 된장찌개를 함께 차려냈다. 소박하지만 화려했다.

'육지 속의 섬'이라 할 정도로 오지(奧地)중에 오지인 경북 영양의 일월산 자락 깨끗한 토질과 계곡물로 길러낸 토종 농산물과 산과 들에서 채취한 풀, 꽃들이 올라온 밥상, 그야말로 건강한 자연식 밥상이다.

'풀누리 소반' 음식체험은 어른 1인분 30,000원, 어린이 1인분 15,000원이며, 5인 이상이면 '풀누리 소반'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다고 한다.

대티골의 특산물인 토종 산마늘과 두메부추는 범람하는 화학식품들로부터 우리 인체를 보호하는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고 있으며, 항균작용을 비롯해 생체활성화를 통해 자연치유력을 증강, 손상된 세포를 복구해 질병이 없는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뛰어난 우리의 전통식품들이다.

기술력 갖춘 강소기업 경북투자 이어져

수도권기업 (주)크로바케미칼 경산지역에 400억원 투자

경상북도는 9월 16일 경산시청 회의실에서 김관용 도지사, 최병국 경산시장, 강선중 (주)크로바케미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크로바케미칼의 정밀화학 포장용기 제조공장 건립에 대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 내 본사와 공장을 갖고 있는 크로바케미칼은 1976년 창업한 뒤 35년 동안 오직 화학물질 포장용기 생산에만 집중, 아시아 최고의 정밀화학용기 제조업체로 성장하였으며, 2012년까지 경산 진량2산업단지에 총 402억원을 투자,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고 200여명의 인력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지역과 함께 열어가는 더 큰 대한민국!"

'지역경제 활성화' 주제로 '2010 지역발전주간' 행사

경상북도는 지식경제부, 지역발전위원회, 16개 광역시·도 공동주관으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대구 EXCO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2010 지역발전주간' 행사에 참가, 지역산업육성사업, 투자 및 고용 지원제도, 주요 개발사업 등을 소개하는 전시관 운영 및 외국인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개최했다.

'지역과 함께 열어가는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 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던 이번 행사는 9월 15일 개막식에 이명박 대통령과 16개 시·도지사, 기업인, 지역주민 등 350여명이 참석,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및 일자리 창출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김관용 도지사는 개막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을 동대구역에서 영접, 이동시간을 활용하여 국정 최대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제2원자력 연구원', '스마트 원자로' 경북 동해안 유치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받았다.

'동아시아 지역의 녹색성장을 위한 생태적 도전과 기회' 주제로

아시아 생태 관련 전문가 모여 '제4회 동아시아생태학대회'

경상북도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일본·중국 생태학회, 국제 장기생태연구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네트워크, 아열대생태학회 등 아시아 각국 생태 관련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녹색성장을 위한 생태적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제4회 동아시아생태학대회'를 개최했다.

동아시아생태학회는 한국, 일본, 중국의 생태학회 회원 및 기타 외국의 저명한 생태학자 등 8,0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로 4회째인 동아시아생태학대회는 매 2년마다 국가별 생태학회가 주관이 되어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로, 도에서는 올해 UN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해를 맞아 생태 관련 국제 네트워크 구축, 정보교류 등을 통해 생물산업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유치하였다.

경북도·전국경제인연합회, '농어촌 보육시설 건립' 위한 MOU 체결

광역자치단체 유일 신청, 전국 12개소 중 4개소 11억원 유치

경상북도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8월 25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보육시설이 부족한 도내 농어촌 지역에 어린이집 건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2010 경제계 보육지원사업' MOU를 체결했다.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은 전국경제인연합회 21개 회원사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취약지역 및 취업모가 많은 산업체 밀집지역 등에 보육시설 건립(유휴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경북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신청하여 전국 최대인 문경, 상주, 영천, 성주 등 4개소 11억원의 보육시설 건립 사업비를 유치했다.

"더 큰 화합! 더 큰 꿈! 함께 하는 미래로!"

낙동강 연안권 4개 시·도지사, '낙동강연안 정책협의회' 개최

김관용 도지사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등 낙동강 연안권 4개 시·도지사는 8월 25일 구미 호텔금오산 컨벤션홀에서 낙동강 연안 개발사업의 공동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낙동강연안 정책협의회'를 개최, 낙동강 수계의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상생발전 모델로서 '낙동강연안 광역계획'을 공동 수립·추진키로 합의했다.

낙동강연안 정책협의회는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4개 시·도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의 안동, 구미, 상주, 문경, 영천, 경산, 고령, 의성, 성주, 칠곡, 예천, 대구시 달성군, 경남도 창원, 밀양, 양산, 김해, 진주, 합천, 창녕, 의령, 함안, 하동 등 22개 시·군을 포함해 26개 광역·기초단체장으로 구성됐다.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위한 공동 협력

민선5기 도지사 시장 · 군수 정책간담회 개최

경상북도는 8월 26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도내 23개 시장 · 군수들을 초청,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에 대한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선4기 성과 및 민선5기 도정 방향에 대한 설명과 일자리 창출·투자유치 방안에 대한 제안, 현안사항에 대한 도 · 시군 상생발전 방안 토의 등을 진행하였으며, 토의 마지막에는 '일자리 22만개 창출, 투자유치 20조원 달성' 을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져 정책간담회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김 지사와 참석한 시장 · 군수가 함께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 경상북도와 23개 시 · 군이 300만 도민들의 뜻을 모아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에 공동 협력키로 굳은 결의를 다졌다.

경북 우수 친환경농산물, 서울 학생들이 먹는다!

서울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업무협약(MOU) 체결

경상북도는 9월 8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용 도지사와 김주수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친환경농산물 서울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포항 쌀, 청송 사과, 의성 마늘 등 경북에서 생산한 우수 친환경농산물을 서울시내 학교급식 식재료로 연중 공급, 우리나라 제일의 소비도시인 서울시에 경북 우수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시장을 개척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기공식 개최

전쟁에서 배우는 평화의 성지 만든다!

경상북도는 9월 3일 김관용 도지사, 김양 국가보훈처장,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 이상효 도의회의장, 이영우 도교육감, 육군 제2작전사령관, 50사단장, 대구 · 경북보훈단체장 등 주요기관장 100여명과 지역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칠곡군 왜관지구전적기념관 옆 자고산에서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기공식을 가졌다.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자고산 자락 약 212,000㎡ 규모의 부지에 6.25전쟁 당시 작전상 폭파한 왜관철교를 형상화하여 인접한 KTX, 경부선 철도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호기심을 유발하고, 추모 및 참배는 물론, 교육 ·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스튜디오 개념을 도입한 공원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2010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일제히 시작

'지역 녹색일자리', '지역 희망일자리' 2개 부문 10대 분야 추진

경상북도는 행사 · 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한 예산과 지역발전상생기금 등 500억원을 투입하는 '2010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지난 9월 1일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발대식' 을 가졌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시 · 군별로 '지역 녹색일자리' 와 '지역 희망일자리' 의 2개 부문 10대 분야로 추진하며, '지역 녹색일자리' 부문으로 명품녹색길 조성을 비롯해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희망의 집수리사업, 폐자원 재활용사업, 취약지역 정비 및 외래동식물 구제사업 등이 진행되고, '지역 희망일자리' 는 스쿨존 어린이안전 개선사업, 마을특화사업 및 향토자원조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이뤄진다.

경북도, 호주와 우호협력 증진방안 협의

샘 게러비츠 주한 호주대사 김관용 도지사 예방

김관용 도지사는 8월 26일 샘 게러비츠 주한 호주대사의 예방을 받고, 경상북도와 호주와의 우호친선 도모,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도지사는 지난 2007년 우호교류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한 서호주 지역과의 활발한 교류가 추진되기를 희망하며, 경제통상, 관광 등의 분야에서 경북도가 호주와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샘 게러비츠 호주대사는 향후 호주와 경북도 간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긴밀한 관계로 발전되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를 미래 에너지산업의 세계적인 중심으로…

2010 월드그린에너지포럼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경상북도는 8월 24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김관용 도지사, 최양식 경주시장,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남동균 대구시 정무부지사, 윤제현 STX솔라(주) 대표이사, 이효수 영남대 총장, 홍덕률 대구대 총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월드그린에너지포럼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 월드그린에너지포럼(World Green Energy Foru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2010 월드그린에너지포럼(WGEF) 조직위원회는 관계 · 산업계 · 학계 · 연구기관 · 언론계 등 55명 관련 인사들로 구성, WGEF의 주요 결정사항들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경북도, 삼성전자와 모바일산업 발전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 위해 삼성전자 220억원 투자

경상북도는 8월 24일 구미시청에서 김관용 도지사, 남유진 구미시장, 이종형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전우헌 삼성전자 구미공장장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함께 (주)삼성전자와 '모바일융합산업 발전 업무협력 양해각서(MOU)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의 내용은 삼성전자의 '차세대 휴대폰 종합시험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것으로, 삼성전자에서는 220억원을 투자하여 모바일융합기술센터를 건립, 모바일 부품소재 관련 기술장비를 구축함으로써 전국의 모바일 관련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독도는 한국 땅' 알린 대학생 독도레이서에 감사패 전달

323일 동안 미국, 페루 등 18개국 30개 도시순회 홍보

김관용 도지사는 8월 11일 세계의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독도 홍보를 하고 돌아온 대학생 독도레이서(서울대 4학년 한상엽 외 6명)의 예방을 받고, 323일 동안 미국, 페루, 호주, 체코, 일본, 남아공 등 6개 대륙 18개국 30개 도시를 순회하며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한 이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독도레이서는 2009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정한 다케시마의 날에 항의해 서울에서 독도까지 380㎞를 완주할 계획으로 독도릴레이를 하다 일원 중 1명이 영덕군 장사리 7번 국도 상에서 사망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경북 중서부 상주~구미~김천, '태양광 삼각벨트' 구축

(주)실트론, 태양전지 웨이퍼 분야 4천억원 투자키로

경상북도는 8월 23일 구미 (주)실트론 본사 강당에서 김관용 도지사, 남유진 구미시장, 이희국 (주)실트론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주)실트론의 태양전지 웨이퍼 공장 건립에 대한 4천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김관용 도지사는 MOU 행사 후 회사 구내식당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뜻을 전했다.

(주)실트론은 반도체용 웨이퍼 전문 기업으로 세계 3번째로 차세대 450mm 웨이퍼 잉곳을 개발하는 등 뛰어난 기술력으로 국내 · 외 시장에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기초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상주의 웅진폴리실리콘, 60MW 태양전지를 생산하는 구미의 STX솔라, 김천의 태양광발전소 등 경북 중서부 지역에 '소재~부품~장비~발전'으로 이어지는 태양광 일관 생산체계를 구축, 태양광 산업 집적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경북도, 단일규모 최대 고용창출 투자유치

LCD 모듈 분야 1조원 투자, 4천명 이상 대규모 일자리 생겨

경상북도는 7월 27일 구미시청 상황실에서 김관용 도지사, 남유진 구미시장, 김성조 국회의원, 권영수 LG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등 참석한 가운데 LG디스플레이의 LCD모듈 공장 건립에 대한 1조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투자양해각서 체결로 LG디스플레이는 2012년까지 1조원을 투자하여 구미 국가산업3단지 내 LG전자 TV공장 부지에 LCD 모듈 라인을 증설하고 4천명 이상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도 / 정 / 단 / 신

청도 천연가스 공급 · 연결도로 착공 동시시행

경상북도는 김관용 도지사,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청도군수, 도의원, 군의원,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0일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 사거리에서 청도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공사와 송원리와 원정리를 잇는 도로공사를 동시에 착공하는 기공식을 가졌다.

수도권 CEO 초청, 산업현장 팸투어 실시

경상북도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수도권기업 CEO 50여명을 초청, 도내 북부지역 영주·상주·문경시, 예천군에서 '팸투터'를 실시, 4개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직접 지역의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문경 봉룡일반산업단지, 상주 웅진폴리실리콘(주)와 (주)캐프 공장 등 투자기업 현장을 견학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적극 홍보하였다.

2010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전국 최고!

경상북도가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동시 실시한 '201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종합평가 결과 전국 1위를 차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훈련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재난업무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각급 행정기관 공무원, 지역주민들로 '국민평가단'을 구성, 훈련에 참여한 398개의 기관과 훈련현장을 방문 평가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콜롬비아 '농촌개발연수단', 경북도 우수정책 벤치마킹

콜롬비아의 중앙 및 지방정부 농업 관련 실무공무원으로 구성된 '농촌개발연수단' 13명은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정으로 경상북도를 방문, 새마을운동과 연계한 농업·농촌정책 수립과 운영방안을 배우기 위해 도내 농촌현장을 둘러보고 콜롬비아 농촌 개발 전략구축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경북도,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개최

경상북도는 9월 10일 안동실내체육관에서 '다문화가족! 우리의 평범한 이웃입니다'라는 주제로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 다문화가족이 직접 참여하여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8개국의 전통의상 패션쇼, 장기자랑, 운동회 등을 함께 하며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한 자리에서 아시아 각국의 전통놀이 및 음식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제13회 부산국제관광전' 최우수 홍보상 수상

경상북도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3회 부산국제관광전'에 도내 23개 시·군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북관광협회 등과 공동으로 참가, '세계문화유산 양동·하회마을', '경북으로 떠나는 아주 특별한 여행' 등을 주제로 홍보관을 꾸며 전국에서 참가한 220여개 단체를 제치고 최우수 홍보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경북도,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대통령상 수상

경상북도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제1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전국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9월 1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외에도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이 국무총리표창을 영천 울타리회(연극단)와 대구은행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2010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 여성대회 개최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협의회에서는 9월 13일 칠곡 교육문화복지회관 대강당에서 김관용 도지사, 권영창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협의회장, 바르게살기 여성회원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 여성대회'를 개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한 여성회원을 시상하고,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 / 정 / 단 / 신

경북의 맛, 으뜸음식점 새 출발

경상북도는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2008년부터 지정·운영 중인 '경상북도지사 인증 으뜸음식점' 180개소 중 2년이 경과한 업소를 대상으로 으뜸음식점 재지정 심사를 실시,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서비스수준 및 위생수준 등이 불량한 26개 업소를 제외한 154개소를 으뜸음식점으로 재지정, '경상북도 으뜸음식점'은 아직 2년이 경과되지 않은 50개소를 합쳐 총 204개소가 되었다.

도청이전 신도시 사업단 사무소 개소

경상북도는 8월 30일 도청이전 예정지 현장인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에서 이삼걸 행정부지사, 윤태현 경북개발공사 사장, 도의원, 시·군의회의장, 편입지 대책위원회 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사업단' 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경북개발공사 직원, 경북도청·안동시·예천군 파견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개발팀, 지원팀, 용지보상팀 등 3개팀 35명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2010년 지역특화발전특구 평가 '대상' 쾌거

경상북도는 지식경제부가 실시한 '2010년 지역특구 평가'에서 성주군의 참외산업특구가 대상을 차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표창과 포상금(250백만원)을, 청도군 반시나라특구가 우수상에 선정되어 지식경제부장관 표창과 포상금(100백만원)을, 문경시 오미자산업특구가 장관상을 각각 수상하는 등 상위권을 석권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전국 최초 디지털 TV 방송 전환시범사업 선포식 개최

경상북도는 9월 1일 울진군 엑스포 영상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디지털 TV 방송 전환시범사업 선포식'을 개최했다. 정부에서는 2013년 1월 1일 전국에서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TV방송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경북 울진군, 전남 강진군, 충북 단양군, 제주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이번에 울진군이 전국 최초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2010 경북국제항공포럼(GIAF) 개최

경상북도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김관용 도지사, 이상효 도의회의장, 조셉 송 보잉 부사장, 그레고리 렉스톤 보잉코리아 부사장, 김용호 록히드마틴 한국지사장, 브라이언트 주브로 P&W 한국지사장, 하칸 보린 SAAB 사장, 공창덕 한국항공우주학회장 등 국내·외 항공 전문가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부품산업 육성전략'이라는 주제로 '2010 경북국제항공포럼(The Gyeongbuk International Aero Forum)'을 개최했다.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식 포항에서 개최

경상북도는 8월 15일 제65주년 광복절을 맞아 포항시청 문화동(대잠홀)에서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기관단체장과 생존애국지사,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 도민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축식을 거행하고, 도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경축행사를 진행했다.

'교수요원 연찬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9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된 '2010년도 교수요원 연찬대회'에 참가, '기관 우수상'을 수상하여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다. 교수요원 연찬대회는 전국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하는 교수요원의 역량강화와 능력 개발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주최로 매년 개최하는 대회이다.

2010년도 2/4분기 '경상북도 신성장기업' 선정

김관용 도지사는 8월 13일 접견실에서 (주)지·텍, (주)S&W IND, (주)나비스, (주)마이크로파우더 등 4개 중소기업을 올해 2/4분기 '경상북도 신성장기업'으로 선정, 증서를 수여했다. 2008년부터 시작한 '경상북도 신성장기업' 선정은 기술 혁신적이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유망한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22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푸른 농촌, 희망 경북 '농촌지도자대회' 열려

경상북도농업기술센터에서는 8월 25일 안동실내체육관에서 농촌지도자 회원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농업의 활력을 도모하고 쾌적한 자립형 복지농촌 실현을 위해 '푸른 농촌 희망 찾기'라는 주제로 '농촌지도자대회'를 개최, 우수회원 표창과 농·특산물전시, 시·군별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실라리안' 신규 참여업체 인증서 수여

경상북도는 9월 17일 정무부지사실에서 '실라리안 신규 참여업체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 공원식 정무부지사가 (주)명보, 송광매원, 삼익에스이에스(주), 경우식품(주) 등 4개 업체에 '실라리안 인증서'를 수여하고, 기업체 대표들을 격려했다. 1999년 10개 업체로 시작한 실라리안은 스포츠·식품·잡화 등 6개 업종에 2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해외 경북인 자녀 초청 한국 전통문화 체험연수

경상북도는 해외 투자통상주재관과 해외자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 해외경북인 자녀 33명을 초청, 8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 동안 안동한국국학진흥원 등 도내 곳곳을 체험하고 배우는 '해외 경북인 자녀 초청 한국 전통문화체험 연수'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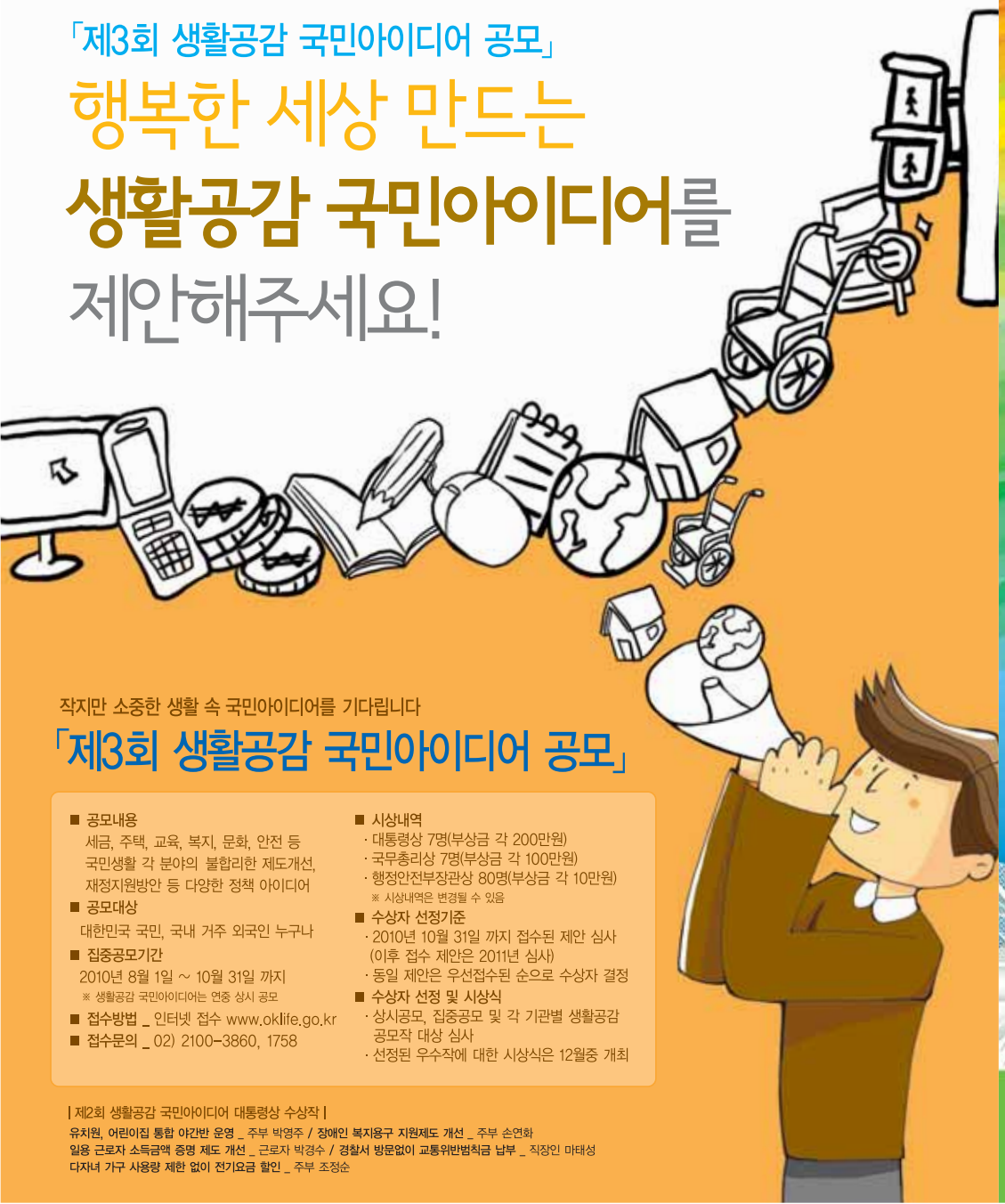
생활공감 국민행복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행정안전부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제3회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

행복한 세상 만드는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를 제안해주세요!



작지만 소중한 생활 속 국민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제3회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

■ 공모내용
세금, 주택, 교육, 복지, 문화, 안전 등 국민생활 각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개선, 재정지원방안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 공모대상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 집중공모기간
2010년 8월 1일 ~ 10월 31일 까지
※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는 연중 상시 공모

■ 접수방법 _ 인터넷 접수 www.oklife.go.kr

■ 접수문의 _ 02) 2100-3860, 1758

■ 시상내역
· 대통령상 7명(부상금 각 200만원)
· 국무총리상 7명(부상금 각 100만원)
· 행정안전부장관상 80명(부상금 각 10만원)
※ 시상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 수상자 선정기준
· 2010년 10월 31일 까지 접수된 제안 심사 (이후 접수 제안은 2011년 심사)
· 동일 제안은 우선접수된 순으로 수상자 결정

■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
· 상시공모, 집중공모 및 각 기관별 생활공감 공모작 대상 심사
· 선정된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은 12월중 개최

| 제2회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대통령상 수상작 |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야간반 운영 _ 주부 박영주 / 장애인 복지용구 지원제도 개선 _ 주부 손연화
일용 근로자 소득금액 증명 제도 개선 _ 근로자 박경수 / 경찰서 방문없이 교통위반범칙금 납부 _ 직장인 마태성
다자녀 가구 사용량 제한 없이 전기요금 할인 _ 주부 조정순

www.wgef.or.kr

WORLD GREEN ENERGY FORUM 2010

2010 월드그린에너지포럼
World Green Energy Forum 2010

2010. 11. 17(수) - 19(금), 경주시
Hyundai Hotel, Gyeongju, Republic of Korea

지구의 미래: 그린 에너지, 그린 혁명
The Future of the Earth; Green Energy, Green Revolution

주최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 경주시 GYEONGJU · 한국경제

주관 WGEF 2010 조직위원회 · 에너지경제연구원

후원 지식경제부 · 교육과학기술부 · 환경부 · 대구광역시 DAEGU

장경식 기획경제위원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의장 선출

장경식 기획경제위원장은 8월 12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제13회 임시회에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심의, 결산승인, 조합규약, 규정의 제개정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대해 견제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조합회의 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제9대 경상북도의회 개회 이후 첫 의원연수회 개최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농협중앙회 구미교육원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얻기 위한 2010년 의원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의원연수는 제9대 경상북도의회 개회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전문교육과 교양과목으로 나누어 실시, 연수내용으로는 국회 의정연수원 김대현 국장의 '조례 및 예산·결산 심사방법'에 대한 특강 및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으로부터 '의원의 역할과 리더십'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아울러 낙동강 살리기 사업현장인 구미보 공사현장과 구미 국가4공단 등 산업현장을 시찰하기도 했다.

경북의 고유영토, 독도에서 본회의 개최

예산결산·독도수호·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제242회 임시회 결산〉

경상북도의회는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제242회 임시회를 개최, 제9대 원구성 이후 처음 맞는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8월 26일 독도에서 열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은 독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63명의 경북도의원 전원은 일본에 대하여 "독도에 대한 일체의 만동을 즉각 중지하라!", "제국주의적 침략근성을 깊이 반성하고 독도 관련 일체의 과오를 사죄하라!", "독도 표기 오류 교육을 전면 철회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만세삼창을 했다.

이어 8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등의 구성결의안을 처리하고 각 특위의 위원을 선출했다.

도정질문

박진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동해안 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감척사업이 저조한 원인 및 향후 대안, 저인망 어업 등 어획강도가 높은 어종의 감척사업 추진실적, 감척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 및 대책, 동해안수산자원 보호 위해 각 어종에 대한 채포금지 체장 및 금어기간에 대한 규정 정비 방안,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위해 보건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보건소 탄력운영에 대한 견해, 도내 농·어가 소득증대 위한 대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나현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경북개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포기한 신도시 조성사업을 맡게 된 배경과 근거, 경북개발공사의 부실화 우려에 대한 입장과 사전 예방 대책, 도청이전 신도시 인구 유인 수단,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농업자원관리원 등 농업 관련 기관의 의성으로의 이전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방향, 도내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가는 논과 밭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해 질문했다.

배수향 의원(문화환경위원회)

경북의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방안, 공직사회에서 여성관리자 승진임용 확대방안,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 각 시·군의 공공기관에 보육시설을 시범 설치·운영하는데 대한 견해, 도내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도차원의 지원 의향, 혁신도시 입주예정인 공공기관이 부지계약체결을 늦추고 있는 실정인데 경북도 차원의 대처 방안, 김천혁신도시의 부지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도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견해 등을 질문했다.

정상진 의원(농수산위원회)

한우사육두수 증가와 관련한 도 차원의 대책, 경북 한우의 경쟁력 강화 위한 차별화 전략 및 고급육 생산 방안, 기후온난화로 재배작물의 변화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 지역별·작물별 재배 적지 재편, 냉재해성·고온 적응성·지역 적응성 품종 개발 등에 대한 견해, 소방서비스 향상 위한 도 차원의 대책, 지역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대책, 도내 문화재의 화재·도난 등에 대비한 보존관리대책, 경북도에서 선도적으로 해외문화재 반환운동을 해나갈 의향 등에 관해 질문했다.

김희원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신공항 결정을 유보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김해공항 확장안을 선택하였을 경우 대응 방안, 경북도와 시·군 연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밀양 신공항 논리를 적극적으로 전개시킬 의향, 신공항 밀양 유치 위한 4개 시·도지사들의 정기적 만남을 4개 시·도 출신 지역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회의로 확대할 의향, 신공항 밀양 유치를 위하여 한시적 프로젝트팀 설치 의향,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련 칠곡보 주변 침수예정지역 농지 리모델링 용역조사를 다시 실시할 의향 등을 질문했다.

이 달 의원(교육위원회)

경북도의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이 희망근로, 공공인턴 등 공공분야에 치우쳐 임시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 대책, 청년층 일자리 확대 방안, 외국인 투자 확대 활성화 방안,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계획, 경북도 각 시·군의 기후와 지형에 적합한 소득작물과 재배적지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 방안 및 재정위기에 대비한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도내 경제 · 과학단체장과 간담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식)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재)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재)경북신용보증재단,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등을 방문하여 각종 사업추진현황 파악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현지방문 활동을 실시하였다.

특히 9월 3일 오후에는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서 포항지능로봇연구소장을 비롯한 10개 출연 · 출자기관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경북을 위해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경상북도의회, 日정부 방위백서 강력 규탄

'일본 2010년판 방위백서의 독도영유권 주장관련' 성명서 발표

경상북도의회는 9월 13일 일본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데 대해 성명서를 내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일본의 방위백서는 미국·유럽·중국·러시아 등 주요 국가로도 배포하고 있어 사실상 외교문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기술에 이어 이번 사건이 독도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성명서를 통해 "제국주의적 침략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침탈행위와 다름이 없는 행동으로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하고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경주 양동마을과 산림환경연구원 현지확인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헌)는 9월 2일에서 9월 3일까지 2일간 최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과 한국국학진흥원, 산림환경연구원을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분야 업무추진현황을 확인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지역 전문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현)는 9월 2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회장 김공가)와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관계공무원 등 22명이 모인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제2별관 회의실에서 지역 전문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어 9월 3일에는 영주 평은-녹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사항 등을 확인하고, 오후에는 김천 혁신도시건설사업 현장을 방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영덕, 영양, 의성 등 농·수산업 현지확인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영덕, 영양, 의성 등 3개 지역 농·수산업 현장을 찾아 농·어민들의 생업에 따른 어려움을 파악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현지 확인을 하였다.

영해중·고등학교 교사 개축공사 현장 등 현지확인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기)에서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영덕 영해중·고등학교 교사 개축공사 현장, 포항·영덕교육지원청 이전예정 부지를 방문하고, 일반 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 교육 여건 및 애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지확인 활동을 벌였다.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현장의견 수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구미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 안동의 도장애인종합복지관, 학산종합복지관, 영천 마야노인전문요양원 등 4개 기관과 시설을 방문,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경상북도의회, 의정비 3년 연속 동결

경상북도의회는 9월 16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난 2009년 이후 2011년까지 3년 연속으로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의정비 동결로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975만원과 연구용역비 1,350만원을 절감하였고,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주민여론 수렴 등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와 더불어 도민들의 의지를 한데 모아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수도권 일부정치인과 지자체의 지방생존권 위협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경상북도의회는 9월 13일 최근 수도권 일부 정치인들과 지자체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재시도하고 있는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도권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9월 정기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초점을 둔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활동 중이며,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일부 수도권 정치인들의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시도와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先지방발전 後수도권 규제 합리화정책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북도,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시행

9월부터 만 7세 미만에서 만 13세까지 확대 지원

경상북도는 시 · 청각장애인의 非장애 자녀가 부모로부터 언어습득 및 학습을 받는 것이 일반가정보다 다소 뒤 떨어지는 것에 착안, 시 · 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을 9월부터 연령 기준 및 제공프로그램 등을 확대 · 시행하고 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수혜 대상자를 기존 만 7세 미만 非장애 아동에서 만 13세 미만 非장애아동까지 연령기준을 확대,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기존 언어재활서비스 외에 독서지도, 수화지도, 놀이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바우처(Voucher)사업이다. 또한, 시 ·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한국농아인협회 경북협회 및 시 · 군지부,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을 제공기관으로 신규 지정, 아동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거나, 아동의 거주지 등에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의 부모 모두 시각 · 청각 등록 장애인이어야 하며, 한부모 또는 조부모가 시각 · 청각등록 장애인도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자는 시 · 군의 소득조사와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을 거쳐 소득 기준에 따라 월 22만원(차등지원) 바우처 지원금이 4등급으로 구분 결정 지원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해당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매달 중순까지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053-950-2515〉

【소득 기준별 대상자 등급 결정 및 지원】

소 득 기 준	등 급	정부지원금 (바우처지원)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2010 경상북도 중소기업 대상 공모

우수업체 대상 10월 15일까지 접수

경상북도는 신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우수 중소기업에 시상하는 '2010 경상북도 중소기업 대상'을 공모한다.

'경상북도 중소기업 대상'은 1993년부터 매년 도내 우수 중소기업으로 건실한 기업 경영과 신기술 개발,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업체를 선정하여 수여하고 있다.

올해의 시상 분야는 종합대상과, 경영부문 · 기술부문 · 여성부문 · 벤처 등 4개 부문으로, 분야별 대상과 우수상 5개 업체 등 총 10개 업체를 선정 · 시상하게 되며, 공모기간은 10월 15일까지이다.

공모자격요건은 경상북도 내에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제조업)으로서 시장 · 군수, 중소기업 유관기관 · 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요건을 갖춘 업체에서도 공모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된다.

심사는 평가항목에 의하여 경영혁신, 신기술 개발, 수출증대, 노사화합 등을 엄정하게 심사하며,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최종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0개 업체를 선정하고, 12월 중에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업체에는 도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지원,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우대평가, 해외시장 개척, 기술지원, 박람회 등 각종 기업 관련 사업에 우선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경상북도 중소기업 대상' 문의는 도 기업노사지원과 (☎053-950-2798)로 하면 되고,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gyeongbuk.go.kr)뉴스와 정보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담당부서 : 기업노사지원과 053-950-2798〉

경상북도, 2010년산 공공비축용 벼 7만 3천톤 매입

물벼(산물벼)는 11월 6일까지 RPC 통해 매입
건조벼는 40kg 또는 800kg(톤백) 단위로 10월 25일부터 12월말까지

경상북도는 정부의 올해 공공비축용 벼 매입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4일부터 공공비축용 벼 7만 3천톤(181만 4천가마/조곡 40kg)을 포대벼 및 산물벼 형태로 매입하고 있다.

벼 매입기간은 물벼(산물벼)의 경우 미질을 고려하여 11월 6일까지 RPC를 통해 매입하고, 건조벼는 40kg 단위 또는 800kg(톤백) 단위로 농가를 통해 10월 25일부터 12월말까지 매입키로 했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평균 산지쌀 값을 벼로 환산한 가격으로 하며, 건조벼(포대벼)와 물벼 매입시 농가에 우선 지급금을 지급한 후 산지쌀 값 조사 결과가 나오는 2011년 1월 중에 정산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톤백벼(800kg) 매입을 확대, 톤백벼 매입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농가가 자체 건조한 상태의 건조벼를 자동 계량기로 계량한 후 기계 계측하여 등급을 판정하고, 톤백에 담아 계약된 창고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농가에서는 포장재 규격에 관계없이 건조상태의 벼만 매입장소에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

또 공공비축미의 품질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연(遲延) 수확 등 과다한 건조로 적정수분이 미달될 경우 쌀의 품질(米質)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기준 수분함량을 15% 이하에서 2010년부터는 13%~15%로 하한치를 설정 시행하게 된다.

품질고급화에 따라 매입품종은 시 · 군별 3개 품종에서 2010년에 2개 품종으로 감축하였으며, 앞으로는 호품, 주남 등 품질이 떨어지는 품종과 쌀 수급 조절에 문제가 많은 품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비축미곡의 품질 향상과 이미지 개선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담당부서 : 식품유통과 053-950-2956〉

결혼지원센터(www.match.kr) 회원가입 · 프로포즈 가능

만.남부터 결.혼까지 경상북도가 도와준다

경상북도는 결혼적령기 미혼남녀들의 결혼을 지원하고자 온라인 결혼지원센터 운영과 오프라인 미혼남녀 '싱글탈출, 결혼도전' 페스티벌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결혼지원센터(www.match.kr)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미혼남녀라면 나이 · 연령 제한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회원가입비(20,000원)도 면제받게 된다.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연 4회 온라인상에서 본인이 원하는 이성의 프로필을 검색하여 프로포즈 할 수 있고, 오프라인 커플매칭 행사에도 참가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경북의 미혼남녀 가입회원은 총489명으로 꾸준한 늘어나고 있으며, 부산, 울산, 충남, 경남, 대구 등 타 지자체 미혼남녀 회원과도 폭넓은 만남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미혼남녀 '싱글탈출, 결혼도전' 페스티벌 행사는 제1회 경주행사에 총 78명(남여 각 36명)이 참가하여 8커플이 성공, 제2회 구미행사에 총 64명(남여 각 32명)이 참가 13커플이 성공, 제3회 안동행사에 총 56명(남여 각 28)명이 참가 12커플이 성공하는 등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다.

앞으로 경북도에서는 결혼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미혼남녀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만남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며, 커플이 되어 결혼에 이르게 되면 도지사의 주례 지원과 결혼축하금, 출산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053-950-2557〉

노 – 는 땅에 나.무 심으면 현금으로 지원

1ha당 최고 254만원, 약용수 · 조경수 등 식재

경상북도에서는 노는 땅(유휴토지)에 조림하면 1ha(3천평) 기준에 현금으로 최고 254만원까지 지원한다.

유휴토지에 조림하고자 하는 경우 올해 11월까지 토지 관할 시 · 군, 읍 · 면 · 동에 신청하면,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내년 봄철이나 가을철에 나무를 심을 수 있다.

수종선택과 조림작업은 토지 소유자가 자유롭게 실시하며,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임야와 연접해 있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한 토지 등 산림복원 효과가 큰 순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나무를 심은 후 5년 이내에 타 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나무를 판매 또는 고사시키는 행위를 하게 되면 지원받은 조림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조림이 가능한 유휴토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나빠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2년 이상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와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 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마을 공한지, 수변구역, 녹지조성 대상지 등이다.

조림수종은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매실나무, 자두나무 등 산지과수(단,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밤나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오미자, 오갈피, 구기자 등 약용수종은 헛개, 음나무, 옻나무, 참중나무, 두릅, 고로쇠 등 특용수종, 은행, 느티, 마가목, 이팝나무, 칠엽수, 꽝꽝나무 등 조경수, 잣나무, 낙엽송, 상수리, 편백 등 목재생산용 수종 등을 권장하고 있다.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053-950-2873〉

종자업 등록이란?

버섯, 채소, 과수, 화훼, 식량작물, 뽕 및 기타 임목, 특용작물, 고사리 등의 종자를 생산 ·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종자관리사 1인 이상 등 요건을 갖추어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에게 등록하고 영업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종자업 등록, 소재지 시 · 군에서 등록 하세요

종자산업법 개정, 도에서 시 · 군으로 변경

경상북도에서는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변경된 종자업 등록 · 변경 · 취소 업무가 시 ·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군 담당자의 업무 혼란과 민원인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8월 26일 시 · 군 종자업 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 개정내용과 업무처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그 동안 종자업 등록을 위해 민원인이 직접 도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올해 종자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 시 · 군청에 종자업을 등록하도록 변경되어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종자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053-950-2388〉

KTX '김천(구미)역' 11월 초 역사적인 개통

김천, 구미시와의 극적인 명칭합의 노력도 한몫

김천시 남면 옥산리 일원에 건립 중인 KTX 김천(구미)역사가 정부의 경부고속철도2단계 완전 개통에 맞추어 동시에 개통되었다.

김천(구미)역사는 지난 2004년 9월 16일 최초로 역사 위치결정이 된 이후 2006년 8월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2단계) 변경고시를 거쳐 2008년 8월 사업을 착공하였다. 이는 총사업비 1,486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공정이 거의 마무리되어 주차장 포장 등 부대시설물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으며, 10월부터 시험운행을 거쳐 오는 11월 2일 개통될 예정이다.

특히, KTX 김천(구미)역의 경우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KTX역사와 연접되어 설치됨으로써 경북드림밸리(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해 오는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이전기관의 4,600여명에 이르는 임직원은 물론 혁신도시의 중심상업지역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로 김천은 물론 향후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경북지역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역사명칭을 두고 '김천역'을 주장하는 김천시와 과 '김천·구미역'을 주장하는 구미시와의 지역간 갈등과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역사명칭을 결정하지 못해 갈등의 골이 깊었으나 역사 개통을 앞두고 명칭결정을 위한 한국철도공사의 역명제정심의회 개최를 3차례나 연기해가면서 경상북도가 중재를 하는 등 마지막까지 노력한 결과 최종 역명심의회 개최 이전 양시에서 조금씩 양보하여 극적으로 역명을 합의하여 '김천(구미)'이라는 역명의견을 철도공사에 제출함으로써 역명제정 제3차 심의회에서 이러한 양시의 의견을 존중하여 '김천(구미)역'으로 최종 결론이 나기에 이르렀다.

다가오는 역사 개통을 앞두고 역사로 연결되는 진입도로도 차질 없이 건설, 10월부터 혁신도시 내 단지계획도로망 중 우선적으로 역사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역사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KTX 김천(구미)역사가 개통이 되면 서울-김천간은 73분, 김천-부산간은 57분, 김천-동대구간은 20분이 소요되는 등 경부선축은 반나절권 생활이 가능하여 그야말로 철도의 르네상스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보인다.

'영천한약과 함께하는 장수의 꿈'

제8회 영천한약장수축제 성황리 개최

제8회 영천한약장수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영천역 광장과 완산동(약령시), 도동 한약재유통단지 일원에서 열려 '한방의 과학화, 산업화, 대중화'를 기치로 새로운 한방문화의 진수를 선보였다.

영천시는 올해부터 한약을 통해 건강한 삶과 장수를 꾀하자는 의미로 축제이름도 '영천한약장수축제'로 변경하고, 전통적인 웰빙을 추구하는 축제로 거듭났다. 또 단순한 전시행사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고 오감할 수 있는 체험행사를 확대하고, 한약장수축제와 골벌문화예술제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영천의 한방산업과 문화예술이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는 잔치한마당을 펼쳤다.

'영천한약과 함께하는 장수의 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장수(長壽)를 주제로 한 장수주제관과 한방무료진료관 등을 운영하고, 한방마당극과 한방경연(황기묶기, 약첩싸기, 약재썰기), 천연염색패션쇼, 제9회 영천포도여왕 선발대회 등의 다양한 무대행사와 자신의 체질 및 취향에 맞는 약재를 골라 방향제/약첩 만들기,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포은 효자탕 달이기, 천연염색 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하였다. 또 약전거리의 특성을 살려 약재상별로 주 약재를 엄선해 특가 판매행사도 갖기도 했다.

한약축제와 동시에 진행되는 골벌문화예술제에서는 왕평가요제, 오페라 갈라콘서트, 무용, 연극, 줄타기 등의 각종공연과 사진작가협회, 미술협회, 공예가협회 등의 각종 전시회도 선보여 관람객에게 한층 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이번 축제의 주요 컨셉인 장수관에는 세계 10대 장수식품과 역사 속 인물의 장수식단, 영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로 만든 장수식품을 전시하고, 경옥고를 비롯한 대표적인 장수 한약재 전시 및 효능설명과 체험, 삽화 또는 사진으로 쉽고 재미있게 표현한 '동의보감'에서 살펴본 '양생'을 통해 건전한 심신의 단련으로 장수의 꿈을, 그리고 국내외 한방진료 체험, 찜질기, 안마기, 족욕기 등 한방의료기기 체험, 기치료 체험 등 영천 한약을 통한 생활속 한방의 진수를 선보였다.

영천한의사회에서 운영하는 한방무료진료관에는 침, 뜸 진료, 한의학 및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중국 자매도시인 포청천으로 유명한 개봉시에서 참여해 중국 전통중의병원 전문인 진료 및 발치료(마사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영천한약산업의 태동지 및 한방특구 탐험과 약전거리 및 한약재 전시관을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개막식 행사가 펼쳐진 1일 오후에는 지역의 삼사관 생도와 군악대 등 8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가지 퍼레이드(시청 완산동시장 삼거리 국민은행 영천교 1km 정도)를 펼쳐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새재의 아침, 신나는 한우축제' 제1회 문경한우축제

문경시에서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문경새재 제7주차장 일원에서 '새재의 아침, 신나는 한우축제'를 주제로 제1회 문경한우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명품 문경 약돌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는 한우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및 부대행사를 준비, 지역민의 화합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우홍보관 등 5개 홍보·전시관 운영, 읍·면·동 장기자랑, 우량한우선발·품평회, 소 달구지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는 물론 대형구이터를 마련하고 한우전문판매장 및 음식점도 운영한다.

한편 문경시 한우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 주제어를 정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 최우수로 선정된 '새재의 아침, 신나는 한우축제'를 주제로 정했다.

이번에 최우수로 선정된 주제어는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새재의 아침'과 문경에서 사육하는 청정한우를 먹고 즐기는 모습을 담고 있다.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 문경사과축제 개최
천혜의 환경에서 재배한 최고의 맛! 문경사과

자연 속에 머물고 싶은 문경, 깨끗하고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문경새재 일원에서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를 만나보세요!

문경시는 10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23일간 문경사과축제를 개최한다. 매년 10월 화려하게 개최되는 문경사과축제는 사과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와 관광객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통하여 문경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과의 주산지인 문경은 경상북도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두대간이 태배산과 소백산을 거쳐 새재의 주흘산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산줄기들에 둘러싸여 작은 분지를 형성하고 있어 한반도 내륙성 기후의 특징인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 주야간의 큰 일교차 지역으로 연평균기온 8~10℃, 생육기평균 15~18℃, 생육기 강우량 630 ~ 740mm로 맛좋은 사과를 생산하는데 최적지이다. 또한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는 다른 자연조건과 더불어 천혜의 사과재배 적지로 다른 지역보다 문경사과는 과즙이 많으며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꿀사과'로 불리기도 한다.

1930년경부터 재배해온 문경사과는 친환경자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으며 문경사과의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사과특판행사 : 2010. 10. 9 ~ 11. 7(30일간)

세계인의 축제, 대한민국 대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10 성황

대한민국 대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안동시 낙동강변 탈춤공원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하회마을에서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흘간 개최되었다.

'신명의 탈춤, 천년의 꿈'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10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등 7개 외국탈춤 공연단과 무형문화재 및 비지정탈춤, 안동의 설화를 소재로 한 창작 마당극 등 국내 11개 탈춤공연단이 참가해 수준 높은 탈춤공연을 펼쳤다.

올해 축제는 퍼레이드 활성화로 참여하는 축제, 탈을 쓰고 춤을 추며 느끼는 축제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축제로 변모하였다.

특히 안동의 숨어있는 명소와 마을의 특징, 다양한 이야기를 소재로 제작한 24개 읍·면·동 탈은 안동의 색깔과 이야기를 가진 탈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관광객들과 어울려 함께 즐기며 축제장 곳곳에서 신나는 퍼레이드를 펼쳤다.

또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의 7개 외국공연을 버라이어티하게 즐길 수 있는 합동공연과 안동지역의 설화와 이야기를 테마로 한 마당극 '추자씨 어디가세요', '착한사람 김상봉' 및 인형극 등은 만원사례를 기록하였다.

지난 2008년까지 음식점들이 배치되었던 벚꽃거리에는 탈을 형상화한 재미있는 조형물, 이동식 무대, 음향, 조명 등으로 장식하여 거리공연이 가능한 거리무대로 설치, 관객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고 흥을 북돋울 수 있는 축제공간으로 변해 즐거움을 더하기도 했다.

또 하회별신굿탈놀이의 동작 가운데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여섯 개의 동작을 중심으로 만든 축제의 공식 댄스인 '탈랄라 댄스'를 시민·관광객들이 직접 배워 1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초대형 퍼레이드를 펼쳐 큰 박수를 받았다.

시월엔 '감' 잡으러 청도로 간다

2010 청도반시축제, 10. 15 ~ 17 청도야외공연장

가을이면 하늘 닿는 끝, 땅 닿는 끝까지 보이는 모든 것이 감빛으로 물드는 경북 청도에서 2010 청도반시축제가 열린다.

오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청도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지는 '감 잔치'는 올해가 네 번째로 '반시로 물든 시월의 추억'이란 주제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추억 만들기와 시식 행사도 함께 한다.

첫째 날인 15일에는 청도예술제, 나는! 반시마니아, The Best 가요쇼가 열리고, 둘째 날 16일에는 생활체조 경연대회, 감물염색 패션쇼 및 도립국악단과 함께하는 반시음악회가 펼쳐진다.

셋째 날인 17일에는 7080 콘서트와 '두드려라! 즐겨라! 반시줄감기!' 행사가 펼쳐지고, 함께하는 폐막식에는 전 관람객이 참여하는 대동놀이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축제기간 상시 행사로 청도반시 주제관, 반시와 허수아비, 바람개비 동산, 솟대전, 다도체험, 와인바, 대형깃발 포토존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와 청도반시, 감말랭이, 반건시 등 무료시식과 청도반시 품평회, 감물염색제품 전시행사 및 저렴하게 판매행사도 펼쳐진다.

감와인과 감잎차가 만나는 반시카페가 운영되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하는 추억의 장, 감 따기 체험, 감와인 터널견학, 청도 문화유적 순례 등 청도로 떠나는 반시여행도 즐길 수 있다.